

‘오징어게임’, 미 넷플릭스 1위 ... 한국 드라마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에 올랐다.

미국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지난 21일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기록한 최고 순위는 지난해 공개된 ‘스위트홈’의 기록인 미국 3위였다.

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팩트북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미국 외에도 한국, 홍콩,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1위를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2위에 올랐다.



▲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포스터. 포스터=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생존 게임을 그린 총 9회 분량의 드라마다.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도굴’의 황동혁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이정재, 박해수, 오영수, 위하준, 정호연, 허성태, 안우팜 트리파타, 김주령 등이 출연한다.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은 미국 비평가 사이트 로튼토마토 지수는 100%,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 평점은 매우 준수한 8.2점(10점 만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위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3위는 ‘클락베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블랙핑크 리사, 빌보드 ‘핫 100’ 진입 K팝 여자 솔로 가수 세 번째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솔로곡 ‘라리사’ (LALISA)로 미국 빌보드 차트 84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리사의 첫 싱글 타이틀곡 ‘라리사’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8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핫 100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내는 차트로 K팝 여자 솔로 가수의 노래가 차트에 드는 것은 CL ‘리프트드’ (90위), 블랙핑크 로제 ‘온 더 그라운드’ (70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블랙핑크 리사. 사진=YG엔터테인먼트

‘라리사’는 이 차트에 오른 블랙핑크의 일곱 번째 곡이기도 하다. 블랙핑크가 피쳐링에 참여한 팝스타 두아 리파와 레이디 가가의 곡까지 합하면 아홉 번째다. 아울러 ‘라리사’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지역 집계로 인기곡 순위를 내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각각 2위에 자리했다.

블랙핑크는 2018년 ‘뚜두뚜두’를 시작으로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꾸준히 빌보드 싱글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3월에는 로제가 솔로 데뷔곡 ‘온 더 그라운드’로 핫 100 70위를 기록하면서 그룹뿐만 아니라 멤버 개인의 브랜드 파워도 드러냈다.

한편 그룹 블랙핑크 히트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23일 오후 7시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17억 회를 넘겼다. 2018년 6월 공개된 지 3년 3개월 만으로,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캐프리오, ‘실험실서 만든 육류’ 스타트업 투자



▲ 리아나도 디캐프리오. 사진=shutterstock

배우이자 기후운동가인 리아나도 디캐프리오가 실험실에서 고기를 개발해 생산하는 육류 스타트업 2곳에 투자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캐프리오의 최근 대체육류 시장의 신흥 영역인 소 세포에서 성장한 단백질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 ‘알레프 팜스’와 ‘모사 미트’의 지분을 매입했다.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알레프 팜스는 이스라엘에, 모사 미트는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가 있다.

디캐프리오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위기와 싸우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의 식량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디캐프리오의 식물 성분으로 만든 버거와 소시지 등 육류 대체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비온드 미트’에도 공개적으로 투자한 바 있다.

알레프 팜스는 살아있는 소에서 분리한 비 유전자 조작 세포로부터 스테이크를 키워낸다.

모사 미트는 지난 2013년 소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근육 조직으로 생산한 소고기를 이용, 세계 최초의 소고기 배양육 햄버거를 선보였다.

대체육류 옹호자들은 이런 벤처 사업을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한다. 전통적인 가축 관리는 동물 사료 생산과 가축 사육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동물 자체에서도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원천 중 하나로 지목된다.

다만 식물성 고기는 주류 슈퍼마켓에 진출했지만, 배양육은 아직 상업화의 훨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